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자율교섭 개입 중단하라”

대우조선지회 상경투쟁 ... “임금인상, 신규채용 등 지회요구 받아라”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대우조선의 임금·단체협약 협상 진행을 가로막는 산업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올라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12월 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 경영간섭 중단, 노사 자율교섭 보장 대우조선지회 상경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우조선지회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에 간섭한다고 지적하며, 대우조선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8시간 파업을 벌였다.

지회는 기본급 4.1% 인상과 단일 호봉제 도입,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회사와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산업은행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산업은행에 실적에 기초한 임단협 교섭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상기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투쟁 발상사에서 “대우조선 노동자가 고통



분담을 핑계로 피가 빨릴 때, 산업은행은 천문학 단위의 성과급을 받고 자신들 배를 채우더니, 이젠 노사 자율교섭도 방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대우조선 부실은 무능한 경영진과 부실한 감독은 산업은행의 책임이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 지회장은 “우리는 산업은행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무시하면 현장투쟁과 산업은행 타격투쟁을 이어가며 조선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장은 투쟁 발상을 통해 “대우조선은 흑자를 기록했다.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노동

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회사를 일으켰다. 이것만으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라며 “세계 각국이 친환경 선박 규제를 도입하는 등 조선산업 점점 나아질 것이다. 어려운 시기 노심초사로 작업장 지키며 일한 노동자들의 4.1%의 기본급 인상 요구는

기본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지회 네 명의 선발대 대의원이 단상에 섰다. 대우조선지회 간부와 대의원들은 9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임단협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12월 5일부터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진우, 김윤재, 박인웅, 주진한 대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 올바른 품질로, 올바른 납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과 지회 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지회는 상징의식으로 농성 천막에 조합원들의 머리띠를 묶으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커피 주문보다 간단한 비정규직 해고

현대차 남안산 대리점 소장, 부당전환 항의하자 해고, 폭행 ... “원청 현대차 압박, 조합원 해고하고 폐업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에 대한 대리점 소장의 폭언·폭행과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얼굴 앞에서 해고하고 폭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2월 6일 경기도 안산시 현대자동차 남안산 대리점 앞에서 ‘노조파괴, 조합원 폭행, 부당해고 자행한 현대자동차 남안산대리점 서민균 소장 규탄 기자회견과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에 따르면 12월 3일 남안산 대리점 서민균 소장은 판매연대지회 조합원에게 아무 이유 설명 없이 다른 팀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조합원이 이유를 묻자 지회의 교섭요청에 해고할 기회만 엿보던

소장은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라며 그 자리에서 피해 조합원의 사원번호 삭제(해고)를 지시했다. 해고는 아무런 절차와 통보 없이 ‘커피 주문보다 더 간단하게’ 이뤄졌다.

12월 4일 피해 조합원은 ‘설마 이런 일로 해고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출근했다. 소장은 당직 근무 중인 피해 조합원에게 “사원번호를 삭제했으니 당직 근무할 필요가 없다. 나가라”라고 지시했다.

서민균 현대차 남안산 대리점 소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너를 위해 대리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조합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 서 소장은 3년 전 조합원들에게 노

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았다.

지회는 서 소장이 자행한 부당해고와 폭행을 소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지회는 “대리점 소장들의 이런 폭행과 부당해고 뒤에 현대차그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리점 소장들은 법정에서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압박해 조합원을 해고하고 대리점을 폐업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지회는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폭행한 서민균 현대차 남안산 대리점 소장의 구속 처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회는 오는 12월 11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한 현대자동차 아산배방대리점 김영숙 소장 규탄대회를 연다.